**전1206 Note**

**◆생명의 은줄 / “ 썬다싱과 마하리쉬” 중에서 발췌**

(중략)

마하리쉬는 말하기를 자신의 영혼이 세상에서 자유로이 왕래할 뿐 아니라

천국에도 갔다 올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육신과 영혼의 미묘한 결합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고

인간 정신으로 이해할 수도 없다.

최종적으로 육신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것은

미묘한 줄이 끊어지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성경에도 이러한 예가 얼마든지 있다.

전 12: 6,7절, 고후 12: 3,4절, 고전 5: 3절, 골 2: 5절, 왕하 5: 26절에 나와 있다.”